믿음 · 정성 · 희망
박운종 세무회계 사무소
TAX ACCOUNTING & CONSULTING SERVICE
•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세무서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리과
• 의정부 조사1과(법인조사)
031)872-6116
016-684-2400
의정부시 의정부3동 98-2 유성B/D 3층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새포천고속관광(주)
Tel: 031)544-8888

올 연말까지 조직정비 · 사업계획 수립

포천시 상록회 제1차 월례회의에서 의결

8월21일 창립한 (사)한국상록회 경기도 포천시상록회가 9월18일 제1차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8월21일 창립한 (사)한국상록회 경기도 포천시상록회(회장 최호열)가 9월18일 오후7시에 제1차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열 회장은 "창립총회를 통해 포천시상록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오늘은 첫 번째 월례회의로 이렇게 회원 분들을 만나게 돼 반갑다"며 "포천시상록회가 포천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의논하는 진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관 제정의 건으로 이사회 개최일을 매월 첫째주 수요일로 정했으며 분과위원회 설치 관련 정관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본부에 납부하는 회비는 당월 납부된 회원수대로 납부키로 의결했으며 사업추진은 올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월례회의를 마치고 전 회원들이 나눈 한마디 시간에는 네널란드, 일본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그린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정보수집중이라는 의견과 포천을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식물과 사람 ⑧ | 과남풀(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9월을 기다린 진보라 꽃망울

가을에 들어서면서 보랏빛을 내는 꽃들이 눈에 많이 띈다. 이끼원에 핀 금강초롱, 들꽃동산에서 하늘거리는 솔체꽃, 층층이 피어난 층꽃풀, 파스텔 톤의 연보라빛 벌개미취와 쑥부쟁이 등. 그 중에 유독 강렬한 보라색 점을 찍듯 피어나는 꽃이 있다.

바로 암석원 연못주변에서 복스러운 꽃망울을 이제 막 탐스럽게 피어내는 '과남풀'이다. 웅담(熊膽)보다 쓰다하여 이름 붙여진 '용담(龍膽)'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이름이다. 최근 식물분류학에서 칼잎용담, 과남풀, 큰용담 등 다른 종으로 구분했던 몇몇 Gentiana속 식물을 같은 종으로 여겨 국가표준식물목록(산림청)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이름을 붙여진 '과남풀(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로 통합하여 부른다.

키는 20~60㎝로 자라고 끝이 뾰족한 잎은 마주나 있으며 꽃은 다섯 갈래로 갈라진 통꽃으로 잎겨드랑이에서 몇 송이씩 모여난다. 저녁과 이른 아침에는 오므리고 있다가 해가 쨍쨍할 때 활짝 피운다. 늦가을까지 오래 피는 꽃인지라 작년에는 첫눈이 일찍 오는 바람에 눈 속에서 꽃을 피워내기도 했었다. 종자를 채취하여 곧바로 씨를 뿌리면 싹이 잘나오며, 부엽이 섞인 토양에 심어 반그늘에서 키우면 잘 자란다.

용담에 관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한 나무꾼이 추운 겨울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토끼가 눈 속에서 풀뿌리를 캐는 것처럼 보여 가보았더니 보랏빛 꽃이 달린 풀이 있었다고 한다. 나무꾼은 그 풀을 산신령이 내려준 것이라 생각하여 위장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께 달여 드렸더니 다음날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한방에서 '용담(龍膽)'이라 불리며, 가을철에 캐서 말린 뿌리는 간기능 보호, 담즙분비 촉진, 이뇨작용, 혈압강화, 진정작용, 항염증 작용들이 있어 소화불량, 간경열, 담낭염, 황달, 두통 등 많은 증세에 쓰이고 있다.

손 자 은
평강식물원 가든관리팀
문의: 031-531-7750

紙上갤러리 ⑭ 그림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상징

김미란의 시간여행(Time travel)

시간여행-자연, 캔버스에 혼합재료, 50호

캔버스에 굵은 올의 마대 천을 덧씌우고 오랜 건축물의 회벽 처럼 금이 가고 벗겨진 듯, 두툼하게 처리된 핸디 코트의 질감에 금, 은, 동의 색 입힘으로 세월을 담은 화면은 시간을 고정시키기에 충분하다.

얼마 전 북경화랑초대에서 보여준 김미란의 시간은 변화와 움직임의 소리였다.

출항을 기다리는 배, 기계적인 부속, 추의 울림, 반복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숫자와 침의 방향성에서 현대의 복잡하고 빠른 변화의 삶을 시간에 맞췄다고 한다면 작품 '시간여행-자연'은 시간 자체를 정지시켜 화석처럼 견고하게 박제화 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작가 스스로의 심리적 변화에서 오는 결과라 생각된다.

불혹의 세월을 훌쩍 넘어버린, 거울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계기에서 찾아든 심상이, 흐르는 시간을 멈추게 하고픈 마음에서랄까! 이 점은 그의 작가 노트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시간의 흐름은 너무 빠르다. 나는 오늘도 질주하는 시간의 한 귀퉁이에 올라탔다"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김미란의 화면은 매우 견고하게 굳어버린 쇠붙이에서 조금만 불을 지펴도 금방 녹아들 것 같은 정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기에 인간적인 매력을 갖게 한다.

진정 우리는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의 시간, 아니 나만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점이 시간을 박제하고픈 김미란의 작품세계이며 어쩌면 우리 모두의 염원일지도 모른다.

글/ 강구원(화가, 계간버질주간)
〈017-317-5731〉

특별인터뷰 … 포천아카데미 대표 이문환

여성 교류 센터 역할

지역문화재 지키고 홍보하는 일 앞장

여성들만의 모임인 포천아카데미(대표 이문환) 창립식이 9월18일 포천시여성회관 청성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1년 전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여성들의 만남으로 시작된 포천아카데미가 60년대부터 구성된 여성단체장을 중심으로 전문분야에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로 소개되었다. 이날 창립한 포천아카데미 이문환 대표를 만나 포천아카데미 창립배경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주)

지난 9월18일 창립한 포천아카데미 이문환 대표를 만나 포천아카데미 창립배경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들었다.

▶포천아카데미 창립 목적은?

그동안 포천사회에서 여성단체를 이끌어온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지역문화재를 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문여성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해서 포천아카데미를 창립하게 되었다.

▶회원구성은?

60년대부터 포천시에서 여성단체를 이끌어오신 단체장과 각 분야의 석사출신 전문가, 현재 포천시에서 여성단체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 그리고 각 분야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구성했으며 현재 1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회원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초대 대표로 취임한 소감은?

가슴이 뿌듯하며 뭔가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식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고 포천사회의 의식변화를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임기 만료 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가교역할이 돋보이며 앞으로 지역 여성들의 유대강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사업계획은?

지역내 여성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발전을 지향하며 문화재지킴이는 물론 알림이 역할과 의식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년에 1회 문화재 관리가 잘 된 지역을 탐방하여 우리지역의 문화재를 지키고 홍보하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포천시에는 훌륭한 문화재가 많다. 그런데 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적다. 따라서 포천아카데미가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홍보하면 해당 지역의 문화와 함께 지역이 알려지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볼거리와 먹거리가 갖추어지고 지역이 발전하게 된다. 특히 교육적으로 자라나는 세대에 큰 도움이 되는 문화재를 지키고 알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포천시민에게 당부사항은?

포천아카데미를 정치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에 있는 목소리를 내고 싶거나 문화재에 관심있는 여성이면 누구가 참여할 수 있다. 함께 시민과 더불어서 포천을 문화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관심과 애정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은?

소리를 들어주기 바란다. 특히 포천아카데미 회원들이 내는 소리에 들어달라. 지역이 변화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포천아카데미가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포천의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한다.

1년에 1회 포천시 정책에 대해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지역문화재 관리가 잘된 지역을 탐방하고 나서 내는 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지역의 문화재를 관광 코스로 개발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은?

포천지역 여론의 중심인 포천신문을 사랑하고 지역에서 쓴소리, 단소리를 가감 없이 해 주길 바란다. 특히 포천아카데미의 소리에도 관심과 애정으로 들어주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
- 대상 : 경기 좌석형/직행좌석형버스 ( ), 서울 광역버스 ( )
1회 환승시 평균 750원 절감, 연간 최대 50만원 절약
좌석(광역)버스 환승시 기본요금 부과 거리는 30km
(일반버스는 10Km)이며,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 기본요금 : 좌석형 1,500원, 직행좌석형 1,700원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넷 (www.gg.go.kr) 참조
교통카드 관련 : (주)이비 02-577-1472, 티머니 1644-0088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서울특별시 KORAIL